https://doi.org/10.15235/jir.2022.09.25.3.123

김정은 집권 10년 통치담론의 동학: 계승성과 독자성, 도전요인*

강 채 연** | 성균관대학교

차 례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및 이론적 배경
1. 선행연구 검토 및 평가
2. 통치담론의 재생산과 변형, 수행성의 관계
Ⅲ. 김정은 시대 통치담론들의 등장배경
Ⅳ. 통치담론의 계승성과 독자성, 그 도전요인
1. 계승성과 독자성의 관계
2. 통치담론의 도전요인
Ⅴ. 결론

● 국문요약 ●

이 연구는 김정은 집권 10년 통치담론의 동학을 계승성과 독자성의 차원에서 살펴보고, 그 도전요인을 분석한다. 연구는 김정은 집권 10년 간 무수한 통치담론들의 재생산 속에서 3대 세습과 사상의 계승, 통치의 독자성이라는 독재체제의 명분과 실리가 '인민담론'의 변형을 통해 어떻게 유인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출발한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김정은 정권에서 통치담론들에 대한 철학적 해석은 선 명제·후 이론정립을 통해 구축된다. 둘째, 2018년 이전까지 통치담론들은 선대정권에 대한 계승성 차원에서 정략적으로 이용되었다면, 그 이후로는 차별성과 독자성의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변형·재생산되기 시작한다. 셋째, 집권 10년을 시작으로, 김정은은 선대지도자들의 최고지위를 모두 소환함으로써 새로운 독자체제로의 질주를 가속화하고 있다. 선대지도자들과의 동등한 지위획득(2021), 김정은 혁명사상의 이론화(2021), 선대수령을 넘어선 최고지도자의 위상 공식화(2022), 당조직·활동·통제방식 개편(2022) 등이다. 넷째, 이를 위해 사상제일주의가 등장하고 새로운 사상의 통합, 주민통합이 강조되고 있다. 다섯째, 김정은 정권에서 통치담론의 지속적인 재생산은 현재 '복종형 사회'에서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1S1A5B5A17057156).
** 성균관대학교 글로벌미래전략연구소 책임연구원.

www.kci.go.kr

'지능형사회'로의 이전에 따른 북한사회변동의 핵심요인에 근거한다. 따라서 김정은 시대 통치담론의 도전요인은 사상의 독재에 반하는 집단주의 일상화의 오류, 지능형사회의 충돌이다.

주제어 : 통치담론, 계승성, 독자성, 인민대중제일주의, 사상제일주의, 김정은 혁명사상

Ⅰ. 서론

본 연구는 김정은 집권 10년 간 무수한 통치담론들의 재생산 속에서 3대 세습과 사상의 계승, 통치의 독자성이라는 독재체제의 명분과 실리가 '인민담론'의 변형을 통해 어떻게 유인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출발한다. 즉 김정은 정권의 통치담론이 계승과 독자성 사이에서 '인민담론'을 매개로 어떻게 변형되고 재생산되는 지, 그 도전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의식이다. 그동안 김정은 정권의 독자성을 구축하는 과정은 선대 수령들의 사상과 업적을 계승하면서도 독창성의 명분을 새롭게 구축하는 과정으로도 볼 수 있다. 즉 김일성-김정일주의나 김정일애국주의, 국가제일주의, 인민대중제일주의와 같이 지속적으로 재생산되는 통치담론들을 주체사상과 이론, 방법론적으로 어떻게 융합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집권 10년의 동학에 담겨있다. 특히 김정은의 사상에 대한 독자성을 구축하는 데 있어 수용하거나 변형해야 할 각종 주의, 사상, 정치의 영역들을 해석하고 사회화시키려는 시도들은 2020년 이후로 극대화된다.

한편, 남북미 비핵화회담결렬(2018~19), 경제발전5개년전략의 실패(2016~20), 코로나19, 대북제재라는 4대 악재 속에서 정면돌파전(2020), 8차당대회(2021), 경제발전5개년계획(2021~25), 김일성생일 110주년·김정일 생일 80주년(2022) 등과 같은 정치경제적 이슈들이 포진되면서 북한은 김정은 집권 10년을 맞았다. 여기에 최근 우크라이나사태로 인한 글로벌 안보위기와 경제위기, 한국대선과 같은 대외적 이슈까지 포진되어 북한은 사상최대의 대내외적 안보위기 및 경제위기들에 직면해있다. 그럼에도 올해 초 연이은 미사일도발과 최근 핵보유 법제화와 같은 강성전략들은 김정은 집권 10년이 갖는 전략적 선택의 결과로도 볼 수 있다. 보다 중요한 것은 2021년 이후로 다시 새로운 통치담론 및 이념·사상의 재생산과 정립시도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들이다.

김정은의 리더십과 카리스마적 권위, 사상의 계승성과 정통성, 독자성과 현실성사이에서 새롭게 출몰하는 통치담론들은 북한의 전략과 노선,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결정하거나 예측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비교분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특정 시대나 정책적 패

www.kci.go.kr

러다임을 배경으로 전략적 노선들이 배출되는 북한의 특성상, 김정은 정권의 통치담론들은 선대정권을 능가하는 통치담론의 재생산, 위계구조의 서열을 가리기 어려울 만큼 복잡한 이행경로와 통치담론의 바다를 이루기도 한다. 이 때문에 종종 김정은 시대 통치담론들의 사회경제적 이행경로와 정책적 이슈들은 이른바 김일성-김정일의 정통성 유지와 함께 차별화전략으로 평가되기도 한다.[1)]

이러한 문제의식으로부터 본 연구에서는 김정은 시대 주요 4대 통치담론(김일성-김정일주의, 김정일애국주의, 국가제일주의, 인민대중제일주의)을 중심으로 각 통치담론들의 이행경로와 특징, 지속적인 통치담론의 재생산배경에 위치한 도전요인을 분석한다. 이는 통치담론들의 재생산과 상호관계, 이론적 배경과 함의 등을 통해 현재 북한정치체제가 직면한 당면과제가 무엇이며, 향후 김정은 체제의 독자성정치와 전략, 그 이행전망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함의를 제공할 것이다.

연구범위와 대상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로, 김정은 집권 10년과 「로동신문」기사를 대상으로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통계분석, 비교분석, 이론분석을 통한 양적 및 질적 분석방법이 적용된다. 연구의 특성상 1차 자료는 「로동신문(2012.1.~2022.4.)」전체기사(정치, 경제, 사회, 대외부문 통합)들이다. 2차 자료는 김일성종합대학,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조선노동당출판사 등에서 발간하는 정기간행물, 보고서, 잡지, 논문 등이다. 3차 자료는 국내외 주요 학술논문, 연구보고서, 정책보고서, 언론매체들과 관련된 문헌 및 자료들이다. 연구내용으로는 △ 선행연구 검토 및 이론적 배경(통치담론의 재생산과 변형, 수행성의 관계), △ 통치담론의 계승성과 독자성(인민대중 중심과 인민대중 제일주의의 상호관계, 통치담론의 이행경로와 특징), △ 도전요인(일상화의 오류, 사상의 독재와 지능형사회)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상술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통치담론의 지속적인 재생산과 북한사회변동 간에 내재된 핵심요인과 북한정치체제가 직면한 핵심문제, 그에 따른 향후 전망을 예측해본다.

Ⅱ. 선행연구 검토 및 이론적 배경

1. 선행연구 검토 및 평가

그동안 김정은의 통치담론 혹은 통치이데올로기와 관련하여 주목된 담론들은 주체사상,

1) 박상희, “김일성-김정일의 정통성 유지와 이미지 차별화전략,” 『북한학연구』 제15권 제1호 (북한연구소, 2019), pp.5-36.

www.kei.go.kr

선군사상에 이어 김일성-김정일주의, 김정일애국주의, 인민대중제일주의, 그리고 국가제일주의 등이다. 관련 통치담론들은 등장시기에 따라 김정은 정권의 사상과 노선, 정체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었다. 이전 정권과 달리 김정은 정권에서의 통치이념이나 지배이데올로기에 대한 분석이 갖는 한계는 특정 시점에서 보여 지는 담론행위의 속성과 내용만으로 통치담론의 단순맥락이나 그 의미를 분석하려는 경향이다.

예컨대 2012년 김정은 정권의 출범과 함께 새롭게 등장한 김일성-김정일주의나 김정일애국주의에 대한 해석은 지배이데올로기의 계승성이나 전통적인 통치담론의 연속선상에서 당연시되는 속성과 결과로 바라본다. 첫째, 주체사상에서 김일성주의, 선군사상,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이르는 동안 북한의 지배이데올로기는 '수령의 혁명사상 심화발전'이라는 명맥 속에서 '사상, 이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를 구축해왔다고 보는 견해다.[2] 둘째, 이 때문에 김정은 시대의 공식 이데올로기는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의 추상화로서 김일성-김정일주의가 되는 것이다.[3] 셋째, 나아가 김정일애국주의는 △ 김정일 통치방식의 계승, △ 인민들의 통합성과 동원의 극대화를 목표로 등장했다고 본다.[4]

2014년까지 김일성-김정일주의에 대한 평가는 선대사상인 주체사상, 선군사상과 함께 공존하면서 그 위상과 사상의 주도권, 해석권에 따른 이론화작업의 결과가 결국은 선군사상에 고착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5] 즉 김일성-김정일주의가 언급되다가 선군사상에 대한 이론화작업으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본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이러한 예측을 적중하지 못했다. 이미 그 시점에서 북한은 주체사상이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출발점이고,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인민대중제일주의라는 명제를 통해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김정은 정권의 통치이념으로 점차 격상시키고 있었기 때문이다.[6]

---

2) 김진환, "김정은 시대 지배이데올로기의 특징과 전망: '김일성주의'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로," 『북한연구학회보』 제17권 제2호 (북한연구학회, 2013), pp.29-45.; 김정은,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자," (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2013), pp. 6-7.

3) 김근식, "김정은시대의 '김일성-김정일주의':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의 추상화," 『한국과 국제정치』 제30권 제1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4), p.78.

4) 한승호·이수원, "김정은 시대의 구호 '김정일애국주의' 의미와 정치적 의도," 『국방정책연구』 제29권 제2호 (한국국방연구원, 2013), p.134.; 김창희, "북한의 통치이념 '김일성-김정일주의'분석," 『한국정치연구』 제22권 제3호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13), p.187.

5) 김창희, "김정은 유일영도체계의 확립과정과 함의," 『한국동북아논총』 제72호 (한국동북아학회, 2014), p.179.; 정민섭·남궁승필, "김일성과 김정일의 우상화정책 비교연구," 『국가정책연구』 제32권 제1호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18), pp.179-200.; 진희관, "북한의 사상과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 『북한연구학회보』 제18권 제2호 (북한연구학회, 2014), p.1.

6) 오세진, "김정일과 김정은 통치제제 비교분석: 사상적기반, 통치기구, 지배엘리트비교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p.5.; 조선사회과학자협회, "김일성-김정일주의는 모든

www.kci.go.kr

김일성-김정일주의와 김정일애국주의를 배경으로 인민대중제일주의가 갖는 의미를 김정은 시대 통치전략의 측면에서 분석한 연구도 있다.[7] 이 연구들은 김정은 시대 지도사상으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주목했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사실상 시기적으로나 내용적으로 4대 통치담론들의 이행과 역동성(2018~21년의 변화), 그리고 통치담론들의 재생산과 김정은 정권의 독자성전략에 대한 분석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한다. 따라서 인민대중제일주의의 핵심의미와 사회화과정들을 완벽하게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국가제일주의와 관련한 가장 최근의 연구로는 △ '권위의 일상화'에 따른 권위의 공백과 시장 확산에 따른 주민의식변화 대체를 위한 정권의 의도적 기획의 결과,[8] △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발전의 담론'[9], △ 국가주의의 전형[10]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또한 국가제일주의는 김정일애국주의를 토대로 하는 김정은의 독창적인 사상이론이자 위력한 무기이고, '국가'의 강조와 '애국주의'강화는 국가의 지위가 격상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본다.[11] '주체사상 및 선군정치의 원칙을 수용하면서도 다양하고 새로운 시도들이 더해지고 있다'고 보면서도 대다수의 전략과 정책들이 '국가'를 중심으로 한다고 본다.[12]

김정은 시대에서 폭발적인 사상과 이념, 정신의 증산(增産)은 자칫 우상화의 일상화[13]나 시장의 일상화에 익숙한 주민들에게 '혼란의 일상화'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변화들에는 특히 '사상의 혼란'을 재정비해야 하는 고민이 뒤따른다.

선행연구들과 달리 이 연구는 김정은 정권의 여러 통치이념이나 담론들의 실체를 개별적으로 파악하기보다는 계승성과 독자성의 측면에서 국내외 환경에 따른 정권의 창출, 재

것을 인민대중을 위해 복무시켜나가는 혁명사상," 『주체』 (평양: 조선사회과학자협회, 연월일 미상).

7) 선병주, "김정은 시대 '인민대중제일주의' 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pp. v - vi.

8) 강혜석, "김정은 시대 통치담론의 변화와 '국가'의 부상: <김정일애국주의>와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59권 제3호 (한국국제정치학회, 2019), pp.309-315.; 김명성, "북한의 '국가제일주의' 무엇을 의미하나," 『북한』 (북한연구소, 2018), pp.109-111.

9) 정영철, "북한의 '우리 국가제일주의': 국가의 재등장과 '체제 재건설'의 이데올로기," 『현대북한연구』 제23권 제1호 (북한대학원대학교 심연북한연구소, 2020), p.6.

10) 유영식, "북한 '국가주의'탐색: 우리 국가제일주의," 『정신논단』 제51권 제5호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사상과 문화연구원, 2019). p.356.

11) 전영선, "사회주의문명국으로의 길, 전망과 과제," 『북한학보』 제45집 제2호 (북한연구소, 2020), p.119.; 마성은, "우리국가제일주의와 북측 동시," 『아동청소년문학연구』 제26호 (한국아동청소년문학연구학회, 2020). p.71.

12) 강혜석(2019), p.309.

13) 이윤규, "북한 김정은 독재체제에서의 우상화: 김정일·김정은 우상화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전략연구』 제21권 제3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4), pp.177-178.; 서재진, 『또 하나의 북한사회』 (서울: 나남출판사, 1995).

www.kei.go.kr

창출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치담론의 동학에 주목한다. 대표적으로 4대 통치담론들 사이의 인과관계와 통치담론들이 재생산되는 대내외적 환경, 구조, 의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새로운 통치담론들의 등장, 소멸, 증감효과에 따른 특징들을 정치경제적으로 비교분석함으로서 세습정권의 계승성에서 독자성으로의 이행이 갖는 전략적 노선과 방침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하나의 통치담론이 갖는 의미보다 각 담론들의 재생산 배경, 여러 통치담론들 간의 상호관계,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따른 통치전략의 핵심요소들과 그 의미를 파악하는 데 보다 큰 의미를 두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각 시대를 지배하는 통치담론들이 어떠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재생산되고 변형되고 수행되는 지에 대한 문제들을 이론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통치담론의 재생산과 변형, 수행성의 관계

전통적인 북한 통치담론의 합리성은 수령절대주의와 위계주의가 '인민'과 '민주주의'로 미화되는 그들의 합리성에 기초한다. 이른바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체제위기와 주민결속차원에서의 절대적인 통치담론과 담론의 재생산을 이끌어왔다. 즉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정권으로 이어지는 동안 세습과 대내외적 정치·경제 환경의 구조적 변화, 북한사회변동에 따른 주민결집 수단으로 통치담론의 지속적인 변형을 통해 리더십과 권위의 정당성을 획득하려고 한 것이다. 주체사상에서 선군사상으로, 선군사상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 사상으로, 김일성주의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역사적 이행배경에 위치한 구조적 요인들이 이를 반영한다.

막스 베버(Max Weber)에 따르면, 최고지도자는 세 가지 유형의 지배유형(카리스마적 지배, 전통적 지배, 합리적 지배)으로 정통성과 시대와 사회변동의 요인에 따른 지배의 정당성을 획득하려고 한다.[14] 이는 세습을 통해 전통과 권위가 계승될 수 있다고 보는 견해에 이어,[15] 여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북한도 전통적인 권력수단으로서의 물리적 수단(군대, 공포, 관습 등)들이 대중의 지적기술발달이라는 새로운 사회변동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반영하기도 한다.[16] 여기서 대중의 지적기술발달은 당연히 과학과 기술, 세계화와 정보화라는 기술의 발전으로 불가피한 변화다. 즉 정치체제의 속성은 변하지 않지만, 정치·경제·문화적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권력의 구조적인 영향과 요인들은 기존

14) Max Weber, *The Theory of Social and Economic Organization*(New York: Free Press, 1964).

15) 신동훈,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과 김정일의 정치적 리더십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pp.14-19.

16) C. E. Merriam 지음, 신복룡 옮김, 『정치권력론』 (서울: 선인, 2006), pp.408-409.

www.kci.go.kr

의 정치적 담론이나 구조, 과정, 행태에서의 구조적인 변화를 유인하는 현대사회의 특징과도 관련된다.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구성과 인간행위방식의 빠른 변화양상은 종전보다 훨씬 복잡하게 개인의식이나 집단의 이해관계 증가에 대처해야 하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정치체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정치적 권위와 욕구사이에서 사회적 요구, 즉 생태·경제·문화·성격·사회적 구조 등 환경적 요인들과 그 특징에 따른 사회적 요구를 통합하고 최소한의 협력을 유인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해야 한다.[17] 여기에 권력자들은 이러한 변화 또는 체계 내에서 대중을 새롭게 결속하고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사상체계를 발명하고 개척하면서 기존의 정치·경제적 정칙(定則)을 다시 형상화하고 짜 맞추려 한다.[18]

그렇다고 전체주의 국가들의 대표적인 통치형태와 상징주의가 변형되거나 바뀌는 것은 아니다. 즉 북한의 경우 다소 정치적인 기념일과 거대한 행사, 상징적인 광장과 기념관, 혁명적인 예술, 추상적인 일화와 역사 만들기, 대규모 군중 및 군사 퍼레이드 등이다. 그럼에도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국가의 역할이 변화하고, 국가의 통치대상으로서 인간의 의식변화에 따라야 하는 숙명감은 여전히 통치자들에게 긴장을 조성하는 근본요인이다. 따라서 통치의 정당성을 합법화하기 위한 이념과 통치담론을 개발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장치와 기술을 창안함으로서 자신이 관리하는 집단의 특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19] 이러한 통치의 합리성은 누가 통치하는 가, 통치란 무엇인가, 무엇이 통치하는 가라는 세 가지 핵심질문들 사이에서 통치자와 피통치자 간의 공통된 인식과 활동에서 비롯된다.[20]

일반적으로 통치와 지배는 정상국가들의 경우 법에 의한 지배를 의미하지만, 푸코(M. Foucault)는 통치의 도구가 사실상 법보다 다양한 전술(strategy)로 지도자의 권위 하에 개인들의 일상을 책임지고 인도하려는 활동이라고 본다.[21] 그리고 어떤 사회에서든 담론의 생산을 조직화하고 나아가 재분배하려는 일련의 과정들이 존재한다. 여기에 전통적인 이데

---

17) David Easton, “An Approach to the Analysis of Political Systems,” *World Politics* 9-3 (1957), 387-338.

18) 안토니 기든스, 지음, 윤병철·박병래 옮김, 『사회이론의 주요 쟁점』 (서울: 문예출판사, 2012), pp. 382-383.

19) 김기덕, “신자유주의, 관리주의 그리고 사회복지: 푸코의 통치성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제72권 제2호 (한국사회복지학회, 2020), pp.181-200.

20) 콜린 고든·그래엄 버첼·피터 밀러 엮음, 심성보 외 옮김, 『푸코 효과: 통치성에 관한 연구』 (파주: 도서출판 난장, 2016), p.16.

21) Michel Foucault, *Sécurité, territoire, population Cours de Collège de France*. 1977~1978(Paris: Gallimard, 2004), pp.151-485.; 홍태영, “푸코의 자유주의적 통치성과 정치,” 『한국정치학회보』 제26집 제2호 (한국정치학회, 2012), p.54 참고.

www.kci.go.kr

올로기는 권력의 작동을 심리적 차원으로 유인하고 의식성과 주체성을 부여함으로써 권력의 대상에게 강제하거나 의무적인 철학개념으로 동화시키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이데올로기는 권력과 지식(과학)의 융합 속에서 작동하는 능동적인 하나의 양태이며 '진리'에 의해 조작되는 일차적인 동인들 중의 하나일 뿐이다. 따라서 권력은 그 작동을 위해 지식이라는 하나의 형태를 요구하게 되고, 그 지식 속에는 반드시 권력이 작동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푸코가 주장이다.[22] 여기에 맑스는 한 사회를 대변하는 지배적인 사상은 물리적 수단을 지배함으로서 정신적 생산수단도 관리하게 되는 일련의 지배계급을 대변하게 되는 지배계급의 사상이라고 주장한다.[23] 이러한 지배계급의 사상이 지식의 발전이나 사회구성원들의 정신적, 문화적, 경제적 발달로 인한 이해관계의 복잡성과 맞물릴 때 통치담론의 변형과 재생산은 불가피한 것이다.

사실상 북한에서의 통치담론들이 '인민'이라는 속성을 매개로 재생산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최고지도자의 리더십과 권위를 대변하는 담론들이다. 그리고 대외적, 정치사회적, 문화적 속성과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재생산의 불가피성을 행한다. 따라서 북한 통치담론의 수행성평가 측면에서 핵심문제는 이행목적과 적용수단에 있어서의 두 가지차원이다. 전자는 최고지도자의 권위와 체제의 정당성을 합리화하기 위한 통치수단이라는 것이다. 후자는 통치담론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민들의 주체화(主體化)에 관한 문제다. 여기서 주체화는 자발적(voluntary), 주체적(independent)이라는 명제 하에 이른바 윤리적·도덕적 행위방식에 더하여 복종·규범·규칙이라는 자발성과 수용성의 이중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상징성이라는 하나의 통치수단이 적용되고, 그 상징성이나 통치의 합리성을 위해 통치담론의 재생산이 가해지는 것이다. 상징적인 내용은 끊임없이 변화하기 쉽고 그 내용 자체에 모순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강렬한 호소력을 지닌다. 그것은 상징이 사람들의 주의력을 끌어들여 지도층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일종의 융합·깨달음·호의 등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통해 정당성과 유지, 확대라는 일종의 목적의식적인 통치나 권위의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새로운 권력상황이 발생하면 최고지도자는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한 새로운 작업들을 필수적으로 자행하게 된다. 그러한 작업들로는 △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일반화시키는 작업, △ 외부집단에 대한 방어, △ 질서와 정의의 상태를 유지하거나 설득하기 위한 작업, △ 합법성의 독점, △ 새로운 정치권력의 위신을 세우는 작업과 이를 상징화시키는 작업 등이다.[24]

---

22) 미셸 푸코 지음, 이상우 역, 『담론의 질서』 (서울: 도서출판 중원문화, 2020), pp.153-54.

23) Marx and Engels, *The German Ideology*(London: Lawrence and Wishart, 1965), 61.; 안토니 기든스(2012), p.230 참고.

24) 권력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권위를 세우기 위한 사실관계의 여러 유형과 관련된 논리는 다음 자료를

www.kci.go.kr

'맞춤형' 통치담론의 재생산에도 불구하고 권위를 약화시키는 중요한 측면은 폭력을 정당화하는 새로운 이론의 발달이다.[25] 따라서 북한 통치담론의 재생산이나 변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관찰대상은 그 담론들 사이의 상호의존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다. 즉 담론 내부에 존재하는 상호의존(하나의 담론형성의 대상, 작동, 개념들 사이의 상호의존), 담론들 간에 존재하는 상호의존(각 담론들 간의 상호연관성), 담론과 담론 외부 간에 존재하는 상호의존(담론형성 배경과 외부요소들 간의 상호의존, 예컨대 담론과 정치·경제·사회변화와의 상호연관성) 등이다.[26] 결과적으로 김정은 정권에서 통치담론들의 계승성과 독자성에 따른 전략들도 북한 정치사회 및 경제사회의 구조적 변화, 복종형 집단으로서의 주민의식변화 등과 같은 북한사회변동의 핵심요인 들 속에서 살펴봐야 할 것이다. 즉 각 통치담론들의 등장과 재생산 배경(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배경), 통치담론 이행의 사회경제적 변화, 각 담론들 간의 상호관계, 통치담론의 효과 등을 통해 김정은 정권 통치담론의 생명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

Ⅲ. 김정은 시대 통치담론들의 등장배경

북한세습은 그 어떤 정치적, 군사적 요인이나 민주주의라는 국민적 합의와 절차적 정당성에 일련의 도전이나 위협도 작용하지 않는 불변의 승계원칙을 따른다. 이 때문에 최고지도자는 자신을 독재자가 아닌 신(神)적인 존재, 국가·계급·대중·민족과 전통 등에서 대리자라고 생각하기 십상이다.[27] 한마디로 '인민의 대리자'로 포장되어 수령절대주의와 인민중심의 통치리더십 사이에서 체제승계와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여기에 정치사회의 변동과 그에 따른 대중의 정신적·물질적·사회적 인식의 변동은 시대적 변화에 따른 통치담론의 이론적 변형 및 재생산과정을 필수적으로 동반하게 된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정권으로 이어지는 동안 북한체제의 다양한 통치담론들은 그렇게 변형되고 재생산된다.

김정일 체제에서 지배이데올로기의 변화는 두 단계, 즉 1980년대 주체사상의 사상·이론·방법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체계화한 것, 1990년대 주체사상에서 선군사상으로의 정

참고할 것. C. E. Merriam(2006), p.52.

25) 안토니 기든스(2012), p.399.

26) 콜린 고든 외(2016), pp.93-94.

27) C. E. Merriam(2006), p.53.

www.kci.go.kr

식화·체계화로 구분된다.[28] 그리고 김정은 정권이 출범하면서 가장 먼저 등장했던 통치담론은 김일성-김정일주의다.

그러나 이에 앞서 '김정일주의'에 대한 언급이 「로동신문」 2012년 1월 13일자 기사에서 먼저 발견된다. 마다가스카르, 카자흐스탄, 페루, 에티오피아, 우크라이나 등을 비롯하여 일부 친북단체 및 국가들에서 김정일의 사망 한 달도 채 안되어 김정일주의연구소조, 김정일동지청년운동사상연구소조, 김정일노작연구소소 등 김정일의 사상, 이론, 업적 등을 홍보·연구하는 단체들을 결성했다는 기사다.[29] 2월에는 그보다 약 19년 전인 1993년 12월에 러시아에서 주체사상신봉자들이 이미 김정일주의연구센터가 나왔다는 기사가 한 차례 등장한다.[30] 그리고 김일성-김정일주의는 그 해 3월 김정일의 노작 '주체사상에 대하여'발표 30주년 중앙보고대회에서 <전당과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 하자!>라는 구호를 통해 일회성으로 등장했을 뿐이다. 이는 4월 6일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에서 정식 김정은 정권의 통치담론으로 정식화한데 기초하여 3일후에는 김정은을 조선로동당 제1비서로 추대하면서 당의 지도사상으로 공식화한다.[31] 그리고 당규약 개정을 통해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규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5월에는 김정일애국주의를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추동력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사실상의 김정일애국주의는 정권 초기 평양시중심의 문화도시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간부들 속에서의 낡은 사업태도와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후대관과 인민관에 의한 헌신적 복무정신)를 통해 등장한 요인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32] 이를 계기로 북한은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김정일애국주의교양을 내세운 것이다. 그 내용은 △ 김정일의 조국관·인민관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 △ 김정일의 인생관·미래관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이다.[33] 김정일애국주의에 대한 이론적 해석은 다시 한 달 후에 등장한다. 김정일식 조국관, 인민관, 후대관이라는 내용에 더하여 '사회주의애국주의의 최고정화'로 정의된다.[34]

---

28) 김진환(2013), p.32.

29) 관련 소조 및 협회, 단체들의 명칭은 다음과 같다. '김정일장군명칭 주체사상연구전국위원회, 김정일저작연구회, 김정일동지명칭주체사상연구보급협회, 김정일주의연구소조, 김정일로작연구학회, 김정일동지청년운동사상연구소조, <김정일장군만세> 친목회, 김정일문화센터, 김정일태권도구락부, 김정일학부, 김정일명칭졸업반, 김정일학년, 김정일학급, 베닌소년혁명운동 김정일소년단, 김정일거리, 김정일도서관, 김정일강당, 김정일강의실' 등이다.; 본사기자, "두 세기를 밝게 비쳐준 태양의 존엄," 『로동신문』(2012년 3월 13일).

30) 김종손, "자주시대의 앞길을 비쳐주는 혁명의 태양," 『로동신문』 2012.02.05.

31) 본사기자, "우리당과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은동지를 우리당의 최고 수위에 높이 추대," 『로동신문』 2012.04.12.

32) 본사기자, "일군들은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정신을 깊이 간직하자," 『로동신문』 2012.05.02.

33) 본사기자, "김정일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자," 『로동신문』 2012.05.21.

www.kci.go.kr

2015년에 들어 김정일애국주의교양은 5대교양(위대성교양, 김정일애국주의교양, 신념교양, 반제계급교양, 도덕교양)으로 확대되고 사상사업과 사상교육의 범위를 확대하기 시작한다.[35)]

전후관계에서 볼 때, 김일성-김정일주의나 김정일애국주의에 대한 이론적 정립은 선 명제(先命題), 후 이론(後理論)정립을 거쳐 체계화된다. 그리고 김정일애국주의에 대한 이론적 정립이 빠르게 추진된 데 비해 김일성-김정일주의에 대한 이론적 정립은 2013년에야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13년 1월 30일 제4차 세포비서대회에서 김정은의 연설을 통해 '김일성-김정일주의는 본질에 있어 인민대중제일주의'라는 명제를 통해서다.[36)] 그리고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인민대중제일주의사상으로 정립되면서 건축분야를 중심으로 인민대중제일주의가 경제건설을 위한 핵심담론으로 승화된다. 이렇게 단기간에 새로운 통치담론들의 재생산과 주민들에 대한 사상교육의 범위가 급격히 확대된 배경은 세 가지로 풀이될 수 있다. 첫째, 새 정권의 정체성이나 정당성확립과 같은 정치적 요인이다. 둘째, 하지만 사실상 장성택처형이나 백두혈통에 대한 정체성의 한계들을 극복해야 하는 위기관리 요인들이 더 크게 작용한 부분이 있다. 셋째, 국가경제발전5개년전략(2016~20)의 진입을 앞두고 주민결속차원에서의 새로운 정신력 동기부여를 필요로 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우리국가제일주의 담론은 2017년 11월 20일 정론을 통해 그동안 국산화정책과 관련된 자력갱생의 성과들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우리민족제일주의와 함께 언급된 용어다.[37)] 두 번째로 언급된 것은 11월 29일 <화성-15형> ICBM 발사이후 그 성과를 자축하면서 1회성으로 언급한 데 불과하다.[38)] 이후 우리국가제일주의는 2018년 4월부터 등장하였으나, 남북·북미비핵화회담이 추진되는 배경에서 그에 대한 언급은 사실상 보류한 것으로 보인다. 2019년에 들어서야 동 담론에 대한 이론적 정립이 등장한다.[39)] 즉 국가제일주의담론도 선 명제·후 이론정립을 통해 체계화된 것이다. 그리고 우리국가제일주의를 등장시킨 배경으로 '우리혁명의 중대한 역사적 전환기', '약소국에서 강대국으로의 전환'[40)]을 언급한 데는 비

34) 최칠남, "위대한 김정일애국주의는 백전백승의 기치이다." 『로동신문』 2012.06.21.
35) 김정은, "김일성-김정일주의 청년운동의 최전성기를 펼쳐나가자,"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에서 한 연설, 『로동신문』 2016.08.28.
36) 김정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4차 세포비서대회에서 하신 연설," 『로동신문』 2013.01.30.
37) 박옥경, "신심드높이 질풍노도쳐나가자," 『로동신문』 2017.11.20.
38) 본사기자,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민족의 대경사, 위대한 조선인민의 대승리," 『로동신문』 2017.11.30.
39) 김성남, "우리국가제일주의의 본질," 『로동신문』 2019.01.08.

www.kci.go.kr

핵화회담의 실패와 대외관계악화를 의식한 결과가 내포되어 있다. 세계 최강대국과의 회담을 이끌어낸 김정은의 업적과 핵보유국이라는 수단을 통해 국가제일주의를 승화시킴으로써 국내결집효과를 꾀하려 한 것이다. 이는 다시 전반적 국력(정치사상적 힘과 군사력, 경제력)을 최고높이에 올려 세우기 위한 통치담론으로 승화한다.

이처럼 김일성-김정일주의와 인민대중제일주의, 김정일애국주의, 국가제일주의가 핵심 통치담론으로 작동하는 동안 북한은 국가경제발전5개년계획의 실패, 비핵화회담실패, 코로나19라는 대내외적인 부작용들을 경험해야 했다. 그리고 2021년 8차당대회와 경제발전5개년계획(2021~2025)수행에서 또 다른 통치담론들이 재생산되고 있다. 바로 사상제일주의다. 사상제일주의는 2021년 8월에 처음으로 등장하였고, 정치사상진지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사람들의 사상의식이 고정불변하지 않고 세대교체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41] 그렇다면 김정은 집권 10주년을 맞으며 사상제일주의가 등장하게 된 사실상의 배경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해석은 4장 2절에서 다루기로 한다.

Ⅳ. 통치담론의 계승성과 독자성, 그 도전요인

김정은 정권 출범과 함께 김일성-김정일주의, 김정일애국주의, 인민대중제일주의, 국가제일주의로 이어지는 통치담론의 재생산은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를 사상정신적 기초로 인민대중중심을 내세운 하향식 통치담론에서 인민대중제일을 내세운 상향식 통치담론으로의 변형을 추구한다. 이는 인민을 매개로 인민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재구성을 통해 현대 북한 정치사회변화에 따른 주민결속을 유인하려는 전략인 동시에 선대정권의 계승성과 김정은 정권의 독자성 사이에서 차별화를 추구하는 과정이다. 4대 통치담론들의 이행경로와 특징에 대한 정치경제적 분석은 이러한 계승성과 독자성의 정치가 인민을 매개로 어떻게 변형·유인되고 있는 지에 대한 문제들을 세부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또한 이러한 통치담론의 지속적인 재생산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집단주의나 시장화에 따른 일상화의 오류, 지능형사회의 출현 등과 같은 도전요인들은 북한정권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다.

---

40) 박혜숙,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밝히신 우리국가제일주의에 관한 사상," 『김일성종합대학학보(철학)』 제65권 제2호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19), pp.24-30.

41) 서성범, "사상제일주의를 일관하게 틀어쥐고 나가자," 『로동신문』 2021.08.23.

www.kci.go.kr

1. 계승성과 독자성의 관계

1) 인민대중 중심 & 인민대중 제일

김일성-김정일주의나 김정일애국주의는 일반적으로 계승성의 차원에서 분석되어진다. 즉 체제의 정당성계승과 선대수령의 업적계승, 그리고 정책계승차원이다.[42] 여기에 통치담론의 특징으로 이른바 전통적인 혁명적 수령론의 변용과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통해 '인간의 얼굴을 한 수령'으로 평가되기도 한다.[43]

앞서 김일성-김정일 정권에서의 통치사상으로 김일성주의는 '주체사상을 핵심으로 하는 사상, 이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로 정의되고, 김정은 정권에서의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주체의 사상, 이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로 정의된다.[44] 이 두 개념사이에 큰 차이는 없다. 주체사상을 기초로 인민대중 중심이라는 핵심논리를 내세운다. 여기에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사상정신적기초가 주체사상+선군사상이고, 본질에 있어서는 인민대중제일주의라고 한다면, 인민대중제일주의도 그 사상 정신적 기초는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이 되는 것이다. 또한 우리국가제일주의의 사상정신적기초가 주체사상+김정일애국주의라면, 모든 통치담론들은 분명 주체사상을 사상정신적기초로 삼는다.

그러나 여기서 보다 심층적인 해석과 논리적 사고를 가한다면, 위의 통치담론들 사이에서 <인민>을 매개로 하는 미묘한 변화를 발견하게 한다. 즉 <인민>을 매개로 하는 통치담론이라는 데는 큰 이견이 없지만, <인민대중 중심>과 <인민대중 제일>사이에서 통치의 대상으로서 인민에 대한 역할을 새롭게 규정하려는 시도다.

우선 북한에 따르면, 주체사상은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 원리에 기초한 사람중심의 사상으로,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힘도 사람에게 있다는 논리가 핵심이다. 따라서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라는 명제를 통해 사회주의국가건설에서 주민들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한다. 또한 통치전략차원에서 김정일은 주체사상을 이민위천의 사상으로 승화시키고, 이를 김일성주의로 계승한다.

한편, 주체사상은 인간의 지위와 역할측면에서 자주성·창조성·의식성을 강조한다면, 선군사상은 총대철학을 통해 △ 사회주의완성, △ 인민대중의 자주성실현, △ 사회생활을 인민대중의 요구에 맞게 혁명적으로 개조하고 변혁해나갈 것을 요구한다.[45] 이를 위해 인민

---

42) Seung-ho Han, "Implications of the Kim Jong-un Regime's Political Ideologies: Focusing on the Advent and Meanings of Neologism in Political Thoughts," 『세계지역연구논총』 제26집 제2호 (한국세계지역학회, 2018), pp.292-294.

43) 김종수·김상범(2021), p.194.

44) 조선사회과학자협회, 『김일성-김정일주의기본』 (평양: 조선사회과학원출판사, 2016).

www.kci.go.kr

대중에 대한 멸사복무, 인민중시·인민존중·인민사랑을 당의 임무와 역할로 내세운다.[46] 그리고 이것을 인민대중제일주의의 핵심내용으로 내세운다. 세부내용으로는 △ 인민중시·인민존중·인민사랑에 대한 관점과 입장 중시, △ 인민의 이익에 그 어떤 특전·특혜도 허용하지 않는 관점과 입장, △ 인민의 지혜를 발동한 국가건설 등으로 요약된다. 이것의 의미는 사실상 인민대중제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주제가 간부혁명이고, 간부혁명을 통해 주민들을 결속할 수 있다는 내적의미와 중요성을 확인하게 한다. 실제로 김정은은 "당사업과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의 인민관, 인민철학의 최고정화인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여 일심단결의 화원을 어지럽히는 독초인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투쟁을 드세게 벌려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47] 김정은은 이미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의 담화(2012.7.26.)에서도 인민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야만 사회주의강성국가 건설이 가능하고, 이것이 곧 김정일애국주의의 원칙과 방도를 실현하는 길임을 강조한 바 있다.[48] 이는 최고지도자와 인민 사이에서 간부들의 정신 도덕적, 책임 의식적 역할을 요구한다. 그리고 국가제일주의를 통해 강력한 집단결속과 사상의 일체성을 유인하려고 한다.[49] 우리국가제일주의의 내용으로는 △ 사회주의 조국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수령의 위대성, 위대한 지도사상, 김일성-김정일주의, 일심단결), △ 나라의 전반적 국력(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 경제대국)을 최고의 높이에 세우려는 의지로 설명하고 있다.[50]

위의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핵심요지는 다음과 같다. 주체사상, 김일성주의, 김일성-김정일주의,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이행하면서 통치의 대상으로서 인민에 대한 주체적 성격이 예술적으로 진화했다는 것이다. 우선 주체사상이나 김일성주의에서는 국가건설에서 인민을 주체로 설정했다면, 김일성-김정일주의나 인민대중제일주의는 인민을 대상으로

45) 김춘근, "우리시대의 완성된 혁명의 지도사상으로서의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특출한 력사적 지위," 『김일성종합대학학보(철학, 경제학)』 제62권 제4호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16). pp.27-29.

46) 김정은, "인민대중에 대한 멸사복무는 조선로동당의 존재방식이며 불패의 힘의 원천이다," 조선로동당 창건 70돌 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에서 한 연설, 『로동신문』 2015.10.10.

47) 김강민, "인민대중제일주의는 주체의 인민관, 인민철학의 최고정화," 『김일성종합대학학보(철학, 경제학)』 제63권 제3호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17), pp.16-18.; 김기철,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구현하는 것은 우리당의 본성적 요구," 『김일성종합대학학보(철학, 경제학)』 제62권 제4호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16), pp.34-37.

48) 김정은,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여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치자』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3), pp.1-10.

49) 김정철, "우리국가제일주의의 본질적 내용," 『김일성종합대학학보(철학, 경제학)』 제64권 제4호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18), pp.41-45.; 강남철, "우리국가제일주의의 사상정신적 기초," 『김일성종합대학학보(법률학)』 제65권 제2호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19), pp.24-28.

50) 박혜숙 (2019), p.24.

www.kci.go.kr

설정하고 있다. 이는 인민대중 중심과 인민대중제일주의사이에서 분명한 차이를 드러낸다. 즉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므로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을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인민을 위한 혁명과 건설을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이다. 다시 말해 '국가건설을 위한 인민'에서 '인민을 위한 국가건설'로 통치이념이나 속성이 변형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최고지도자나 관료들의 리더십이나 역할측면에 있어서도 기존에는 인민을 동원(인민의 역할)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멸사복무를 주장했다면, 김정은 정권에서는 인민의 이익(인민을 위한)을 우선하는 멸사복무로 대체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김정은 정권의 통치담론들이 초기에는 선대의 사상이론적 계승차원에서 인민을 강조하며 재생산되었다면, 점차 인민의 지위를 격상시킨 독자성의 통치담론으로 변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인민대중 중심과 인민대중 제일 사이에서 김정은 정권의 통치철학을 차별화하려는 시도다. 또한 인민의 지위를 격상시킴으로서 새로운 형태의 집단결속을 통해 김정은 정권의 정당성을 획득하려는 시도다. 본 배경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반 분야들에서 북한사회변동에 따른 주민들의 지위와 역할변화, 그에 따른 인식의 결과들이 반영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추론은 그동안 김정은 통치담론들의 이행경로에 따른 일련의 특징을 통해 보다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다. 따라서 「로동신문」을 통해 양적·질적 분석에 의한 통치담론의 이행과 특징을 객관적으로 살펴본다.

2) 통치담론의 이행경로와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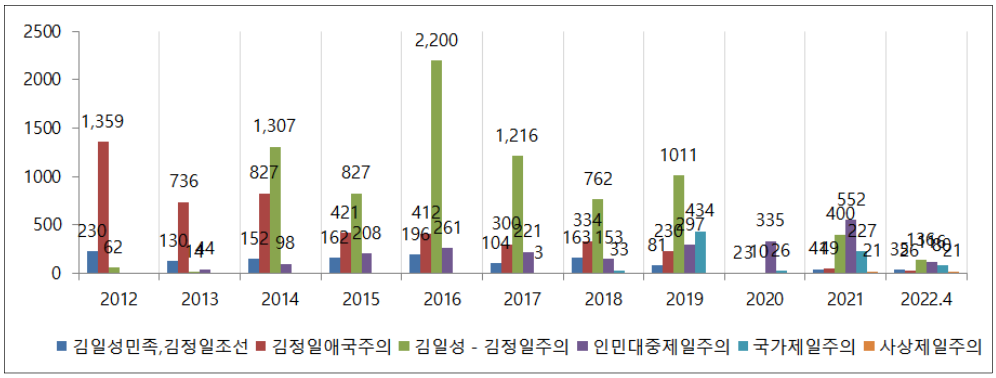
「로동신문」기사들에서 2012년에 가장 많이 언급된 통치담론은 김정일애국주의다. 그리고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에 대한 언급이 두 번째로 높은 빈도수를 나타낸다. 이러한 기조는 2013년까지 이어진다. 2014년부터는 김일성-김정일주의가 1,307회로 가장 많이 언급되고, 그 뒤로 김정일애국주의, 김일성민족·김정일조선, 인민대중제일주의 순으로 언급된다. 이는 2013년 장성택숙청의 후과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사상적 결집 필요성이 크게 증가했던 배경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를 시작으로 국가경제발전5개년전략이 시작되던 2016년에는 2,200회로 사상 가장 높은 빈도수를 나타내고, 김정일애국주의에 대한 언급은 2014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대신, 인민대중제일주의에 대한 언급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다. 이 시기는 김정은의 패션정치가 최고조에 이르던 시기와 맥을 같이하기도 한다.

국가제일주의는 남북미비핵화회담 실패 이후 2019년에 이르러 434회로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 2018년에 하반기에 33회로 언급된 데 비해 약 13배 이상 증가한 것은 비핵화실패 이후 국가의 발전전략차원에서 자립자강에 대한 의지가 크게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사실상의 우리국가제일주의는 초기 핵보유국으로서의 군사강국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언급되

www.kci.go.kr

었으나 이후로 국가건설 전반에서 중요한 통치담론으로 적용됐다. 그리고 2020년에는 인민대중제일주의가 335회로 모든 통치담론들을 제치고 가장 많은 빈도수를 나타낸다. 또한 2020년 8월 19일 당중앙위원회 제7기 6차 전원회의에서 경제발전5개년전략의 실패를 공식인정한 후로 내각 및 간부들의 책임과 역할주문을 통해 인민대중제일주의에 대한 언급이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다.

〈그림 1〉『로동신문(2012~2022.4)』을 통해 본 통치담론의 이행특징



출처: 『로동신문(2012.1.1.~2022.4.30.)』 전체기사들을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앞서 김일성-김정일주의는 2013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신[51]으로 주체사상과의 종속관계에서 출발하였으나, 하반기에 이르면서 인민대중제일주의와 동일선상에서 적용되기 시작했다.[52] 2014년 7월에 들어 사상(인민대중제일주의사상)으로 승격되면서 주체사상·선군사상과 동일시되고, 김일성-김정일주의 독창성으로서의 인민대중제일주의사상이 강조됐다. 2015년에는 <당 사업 전반에>[53], 2016년 이후로는 <모든 사업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 사상, 정신, 기풍, 기치, 이념 등의 복합적인 이식이 증폭되기 시작한다. 이를 반영하여 2016년 당 규약 개정을 통해 5대 교양을 기본으로 김일성-김정일주의교양을 강화하며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구현한다는 원칙을 명시했다. 이 때문에 2016년 5월 7차 당 대회를 계기로 김정은은 명실상부한 일인집권체제를 온전하게 구축했다고 보는 견해도

51) 본사기자,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건국업적을 깊이 연구체득하고 더욱 빛내여나가자," 『로동신문』 2013.09.05.; 김정은, "당의 주체적 건축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건설에서 대번영기를 열어나가자," 『로동신문』 2013.12.08.

52) 본사기자, "우리식 사회주의는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이다." 『로동신문』 2013.12.27.

53) 김정은, "신년사," 『로동신문』 2015.01.01.; 김정은, "당, 국가경제기관, 근로단체책임일군들과 하신 담화," 『로동신문』 2015.05.29.

www.kci.go.kr

있었다.[54] 그러나 여전히 헌법상으로는 2020년까지도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공화국의 활동지침'으로(헌법 제1장 제3조), 당 규약에서는 선군정치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것이 2021년에 들어 당 규약개정을 통해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로 정식화됨으로서 명실상부한 김정은정권의 독자노선이 정립된 것이다. 즉 8차 당 대회를 통해 김정은 정권의 통치담론으로 공식화되고, 경제발전5개년계획의 시작과 함께 인민대중제일주의는 김일성-김정일주의, 국가제일주의에 비해 가장 높은 빈도수로 언급된다. 그리고 김정일애국주의에 대한 언급은 대부분 선대수령의 업적차원에서 인용된다. 이후 2021년 4월부터는 사상제일주의가 등장하고 동시에 김정은의 혁명사상에 대한 이론적 정립들이 시도되기 시작한다. 또한 인민대중제일주의사상을 다시 인민대중제일주의이념으로 승격시킴으로서 명실공이 김정은 체제의 독자이념으로 공식화하였다.

〈표 1〉 헌법, 당규약, 『로동신문』을 통해 본 김정은의 지위변화와 통치담론의 관계

구분	1998	2012	2016	2020	2021	2022
김일성	영원한 주석	-	영원한 수령	영원한 수령	위대한 수령	위대한 수령
김정일	국방위원장	영원한 수령 영원한 총비서 영원한 국방위원장	영원한 수반	영원한 수령	위대한 수령	위대한 수령
김정은	-	당 제1비서	당위원장 국무위원장	-	수반 총비서	위대한 수령
통치담론의 우선순위	- 김일성주의 - 우리민족제일주의	- 김정일애국주의 - 김일성-김정일주의	- 김일성-김정일주의 - 김정일애국주의 - 인민대중제일주의	- 인민대중제일주의 - 우리국가제일주의 - 김일성-김정일주의 - 김정일애국주의	- 인민대중제일주의 - 김일성-김정일주의 - 우리국가제일주의 - 김정일애국주의 - 사상제일주의	- 김일성-김정일주의 - 인민대중제일주의 - 우리국가제일주의 - 김정일애국주의 - 사상제일주의
기본정치방식	주체사상	선군사상	선군사상	선군사상	인민대중제일주의사상	인민대중제일주의사상

출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헌법(1998~2021)』, 『조선로동당규약(1998~2021)』, 『로동신문(2012~22)』 자료들을 토대로 연구자 작성.
통치담론의 우선순위는 『로동신문(2012.1.1.~2022.4.30.)』 전체기사들에서 통계적으로 종합된 언급빈도수 순위로 추정함.

이처럼 통치담론의 이행경로를 통해 몇 가지로 논리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영원한 사상'으로 묶어두고 사실상 인민대중제일주의를 통해 김정은 정권의 독자이념을 형상화(形象化)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이로서 인민대중제일주의는 인민중심의 김일성-김정일주의와 같은 하향식 통치이념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와 같은 인민

54) 오태호, 『김일성 유일사상체계에서 김정일애국주의를 넘어 김정은 시대로의 안착』 (서울: 솔출판사, 2018), p.34.

www.kei.go.kr

우위의 상향식 통치정책과 통합정책으로서의 통치담론으로 격상되었음을 의미한다. 한편, 통치담론들의 이행경로를 따라 김정은의 지위도 점차 선대수령과의 동등한 지위로 이행·격상되는 특징을 보인다.

<표 1>에서와 같이 김정은은 2021년 1월 8차당대회를 계기로 선대수령들을 '영원한 수령'에서 '위대한 수령' 으로 소환했고, 그로부터 9개월 후인 10월 당 창건기념일을 계기로 북한에서는 김정은에게 '수령'의 호칭을 부여하기 시작했다.[55] 마찬가지로 선대수령들에게 부여됐던 '영원한 총비서'나 '영원한 수반'이라는 최고지위들도 모두 소환하여 김정은의 최고지위와 독자성을 구축했다. 이를 바탕으로 2022년부터는 선대수령과 동등한 지위에서 '위대한 수령'으로 호칭되고 김정은 체제의 공고화를 위한 새로운 주민결속을 유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김정은 정권에서 통치담론의 지속적인 변형과 독자성의 정치가 갖는 현재의 의미는 무엇이며, 그 도전요인은 무엇인가? 우선 김정은 시대 통치담론들의 변화배경에는 선대정권들처럼 개인 신격화나 우상화보다는 당이나 국가를 내세워 조직화된 통치를 통한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으로서의 시도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전히 국가의 목표가 일인지배체제가 갖는 위계질서와 집단주의, 이룰 수 없는 목표와 경쟁주의 등과 같은 모순에 의존함으로서 통치담론들에 충돌하는 도전요인들은 그 한계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 대표적으로 그러한 도전요인들은 북한주민 일상화의 오류나 시장화로 인한 지능형사회의 출현 등이다.

2. 통치담론의 도전요인

1) 일상화의 오류

일반적으로 국가나 인민을 내세운 통치담론들의 기저에는 민심의 이변이나 변동의 핵심요소들에 대한 '긴장의 정치(politics of tension)'가 다소 크게 작용하는 부분이 있다. 특히 북한에서 '혁명의 일상화(혹은 혁명정권의 일상화)'[56]나 정책적 실패를 통한 주민들의 무관심이나 장기적 피로감은 최고지도자의 권위의 해체나 체제긴장을 촉발시키는 핵심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긴장 사이에서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55) 김병진, "운명도 미래도 다 맡아 보살펴주시는 위대한 어버이를 수령으로 높이 모신 인민의 영광 끝없다," 『로동신문』 2021.10.22.

56) 혁명의 일상화, 혹은 혁명정권의 일상화와 지도자의 카리스마적 권위사이의 관계는 다음 자료를 참고할 것.; 안경모, "북한의 선군노선과 권위구축동학,"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pp. 21-23; 강혜석(2019), pp.313-314 참고.

www.kci.go.kr

또 다른 통치담론이나 이론개발을 통해 기존질서에 대한 '실패의 억제 또는 인식전환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이는 세습정권이 감내해야 하는 내재적 긴장인 동시에 독자노선이 필요한 배경이기도 하다. 특히 김정은 정권에서는 초기에만 집중적으로 통치담론이 생산된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다. 이러한 배경을 설명하는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문화적 여러 요인들 중에 한 가지 분명하고도 중요한 것은 북한정치사회의 변화다. 이런 측면에서 주목해야 하는 핵심요소는 '일상화의 오류'나 '주의정치, 주의문화'가 갖는 딜레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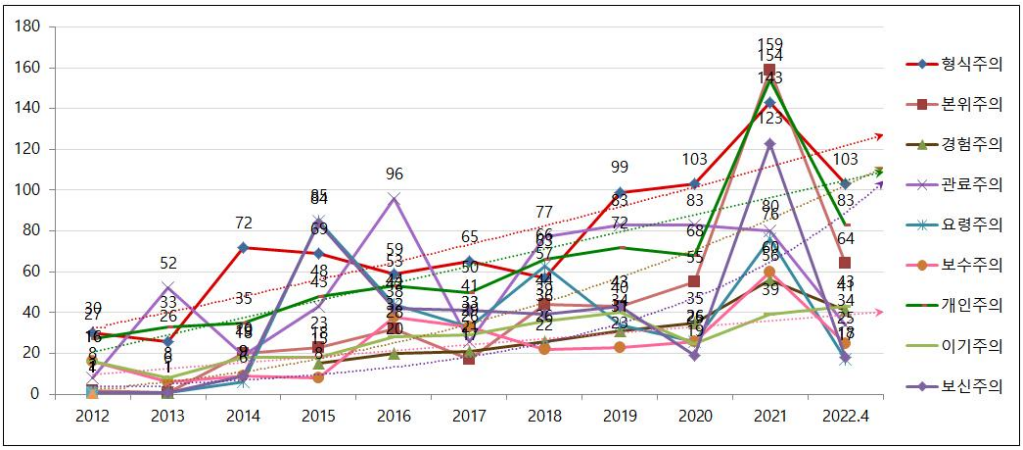
인간생활에서 '일상화의 오류(an error of everydayization)'는 어떠한 도덕적 규범이나 생활환경, 인식에 따른 규범적·규칙적 행위방식에서의 일탈에서 비롯된다. 북한지도부와 주민들 사이에서 일상화의 오류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속성과 배경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첫째, 만성적 경제난과 시장화·정보화로 인한 정치·경제사회의 급격한 변화는 이른바 수령절대주의의 정치체제와 일심단결, 절대주의와 집단주의로 대표되는 세습정권의 구심점에 상당한 위협이고 도전이 될 수밖에 없다. 둘째, 전통적인 정치조직생활의 형식화(形式化)나 형해화(形骸化)의 일상화다. 셋째, 경제건설에서의 내적동력강화와 개인의 삶의 욕망에 있어서의 내적동력 분출은 불가분의 관계다. 현재 북한 지도부가 경제발전5개년전략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핵심 통치담론과 통치전략으로 내세우는 데는 이러한 주민들의 사상·문화의식의 변화로 인한 사회변동에 대한 의식이 크게 내재되어 있다. 즉 국가-기업-주민 사이에서 시장화로 인한 형식주의, 이기주의와 개인주의, 본위주의 등과 같은 자본주의적 경향들이 집단주의·사회주의적 요소들과 충돌하고 있는 문제다.

다른 한편, 위기관리 측면에서 '주의'정치는 북한 통치담론의 중요한 수단이다. 이른바 긴장(緊張)과 동원, 집중과 헌신 등에 대한 정신적·심리적 강요를 통해 개인의 삶의 목표와 권리를 국가에 귀속시킴으로서 통치의 위계성을 당연시하거나 강화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주의정치'와 '주의문화'사이에는 분명한 딜레마가 존재한다.[57] 그것은 이른바 '복종의 일상화(everydayization of obedience)'가 갖는 한계이면서도 사회변동의 핵심요소라는 사실이다. 실제로 최근 북한에서는 통치담론의 지속적인 재생산에도 불구하고 관료와 주민들 속에서 전통적인 '혁명의 일상화' 혹은 '복종의 일상화'가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들은 통계적으로도 확인된다. 즉 형식주의, 본위주의, 경험주의, 관료주의, 요령주의, 보수주의, 개인주의, 이기주의, 보신주의와 같이 비사회주의, 반사회주의와 같은 자본주의적 행위의 심각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57) 여기서 '주의'정치는 사상이나 통치담론과 관련되는 의미이고, '주의'문화는 통치의 대상으로서 관료와 주민들의 행위방식과 태도를 의미하는 개념이다.

www.kei.go.kr

〈그림 2〉 북한에서 반사회주의적 행위들의 언급추이와 경향



출처: 『로동신문(2012.1.1.~2022.4.30.)』전체기사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그림 2>에서 보면,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로 형식주의, 본위주의, 보신주의, 개인주의에 대한 언급은 지속적으로 높아진 편이다. 형식주의는 2018년 57회에서 2021년에는 143회로 2.5배 이상 증가하였다. 본위주의는 2018년 44회에서 2021년 159회로 3.6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마찬가지로 보신주의도 2018년 39회에서 2021년 110회로 2.8배 이상, 개인주의는 2018년 66회에서 2021년 154회로 2.3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2021년 최절정에 도달한 한편 2022년에는 상대적으로 더 높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실제로 2022년 4월까지 4개월 동안 언급된 빈도수(형식주의 103회, 개인주의 83회, 본위주의 64회)를 2021년과 비교할 때 형식주의는 약 2.2배, 개인주의는 약 1.7배, 본위주의는 약 1.2배로 언급빈도수가 더욱 증가하는 흐름을 보인다. 전체적으로 2021년에는 본위주의, 개인주의, 형식주의, 보신주의, 보수주의, 관료주의, 요령주의 순으로 언급빈도수를 보였고, 2022년에는 형식주의, 개인주의, 본위주의, 이기주의, 경험주의 순으로 언급빈도수가 상대적 증가세를 보인다.

김정은은 정권초기부터 유일적 영도체계를 확립하는 데서 간부들의 보신주의, 형식주의, 요령주의, 본위주의, 관료주의 등을 불건전한 사상으로 규정하고 사상교양의 핵심대상으로 지적한 바 있다.[58] 관료주의는 전통적 위계질서와 계급, 권위에 의한 관료들의 사업태도와 행위를 의미한다. 현재 시장화의 확산과 한류의 급속한 확산,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나 포전담당제, 금융개혁과 일련의 경제개혁 및 시장개혁정책들, IT화와 경제활동 수단의 다양성확대 등은 개인이나 기업, 단체들에서 경제활동과 이익을 중심으로 하는 보신주의와

58) 김정은,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자,"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에서 한 연설, 『로동신문』 2014.02.26.

www.kci.go.kr

본위주의의 일상화를 초래한다. 마찬가지로 방대한 국가의 계획과제와 보편적 시장경제활동 사이에서 관료나 개인, 기업들은 국가의 정책이나 생산계획을 교묘하게 회피하려는 행위로서의 요령주의가 일상화된다.[59] 특히 관료들 속에서의 보신주의나 요령주의는 당정책 수행에서 책임과 처벌이라는 절대적 기준에 의해 평가되어야 하는 북한적 특성과 맞물려 있다. 따라서 당이 맡겨준 과제를 적당히 받아들이고 적당히 수행하면서 직위해제나 처벌을 회피한다. 이러한 행태들이 현재는 시장적 이익과 맞물려 일상화의 확산을 초래한다는 것이 지도부로서는 가장 큰 위험요소다. 경제발전5개년전략(2016~20)에 대한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을 간부들에게서 찾고, 2020년 이후로 간부의 전문성이나 간부혁명을 강조하는 배경도 이를 설명한다.

2022년에 들어 형식주의와 관련된 문제는 주로 사상사업 분야와 관련된 기사 및 문헌들에서 등장한다. 실제로 김정은은 2022년 3월 29일 제1차 선전부문일군강습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형식주의의 사상적 바탕은 혁명의 주인다운 자각의 결여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 심각성을 비판했다.[60] 서한에서 사상제일주의나 사상형식주의와 관련하여 언급되고 있는 주요 문제의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상사업의 형식화가 사회변화나 외부사상의 유입에 따른 혁명진지·계급진지를 위협하고 있다는 견해다. 둘째, 따라서 객관적 현실을 인정하고 그에 적합한 사상사업의 내용과 방법을 부단히 개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최근 들어 개인주의, 이기주의를 타개하기 위한 집단주의교양, 계급교양, 도덕교양을 공세적으로 들이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이를 위해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와의 투쟁에서 '사상전의 포격을 집중화, 정밀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는 관료들이나 주민들의 사회경제적 의식변화를 향한 언급수위나 압박공세가 여느 때보다 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당 선전선동사업의 목표에 있어서도 △ '혁명진지에 쉬를 쓰며 온갖 부정적인 현상들을 타매하고 추호도 용서함이 없이 짓뭉개버리는' 대중적인 압박공세, △ 사회적인 투쟁분위기, △ 사람들의 머릿속에 침습하는 반사회주의와 비사회주의의 '잡귀신을 날려 보내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주민들의 사상의식이나 행위방식, 도덕적 규범, 책임과 역할 측면에서 일상화의 오류가 심각한 정치사회변동의 핵심요인으로 자리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하나의 사실이다.

시장화와 한류로 인한 북한주민의 이중적 사상문화(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등)의 동거는 근 30년에 이른다. 그동안 북한주민의 사상정신적 토대가 되었던 각종 사상학습이나 생활총화, 조직생활 등은 시장활동나 그들 경제적 이익에 우선하지 못하

59) 김용진, "일군들의 사업평가기준," 『로동신문』 2012.10.25.
60) 조선중앙통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1차 선전부문일군강습회 참가자들에게 강령적인 서한을 보내시였다," 『로동신문』 2022.03.29.

www.kei.go.kr

는 형식화의 일상화를 초래했다. 심지어 당의 방침이나 수령의 혁명사상을 전달하는 강연회나 강습회, 사상학습, 당정책 교양, 그리고 생활총화나 조직생활, 국가행사나 국가건설동원에도 금전거래가 일상화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사상의 일체화, 집단주의의 일체화, 위계질서의 절대화 등과 같이 북한정치체제나 제도의 정통성에 반하는 모순과 딜레마들이 보다 증폭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2) 사상의 독재와 지능형사회의 공존

사상의 독재는 그 사회를 독점하는 절대적인 통치수단이면서도 사회구성원들의 정신력을 하나로 결속시키고 개인의 의식과 자유를 강제하고 통제하려는 절대적인 기준과 척도를 그 내용으로 한다. 때문에 집단주의체제에서 통치담론의 지속적인 재생산과 변형은 그 시대가 처한 환경과 집단의식의 변화에 따른 사상의 독점이나 지배를 위해 지속적으로 재생산되고 변형되어야 하는 생물학적 속성에 기인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상의 독재는 시대적 변화에 따른 차별성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게 되고, 이를 통해 독재체제의 생명력과 정치사회적 연속성에 합리성을 부여하려 한다.

북한에서 당의 최고 강령으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1974)>,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1974)>,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2012)> 등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정권으로 이전하면서 후계승계나 정권 이행기에 주로 등장했다. 선대지도자의 사상이나 업적을 통치담론으로 승화함으로써 정치체제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차원으로 설명된다. 그러나 2022년부터 북한에서 김정은의 혁명사상과 관련된 언급들이 등장한다. 이는 <김정은주의>의 공식등장이 임박했음을 추측할 수 있다. 김정은의 혁명사상에 대한 언급은 주로 당중앙의 혁명사상, 총비서동지의 혁명사상 등과 함께 대대적으로 등장한다. 이는 2021년 이전까지만 해도 '당의 혁명사상'이라고 언급했던 추상적 용어에 비해 보다 절대적인 의미가 있다. 즉 김정은의 절대적인 지위와 독자체제의 구축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배경에서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일색화하자!>라는 구호도 2022년 현재 <김정은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자!>라는 구호로 대체되고 있다. 이와 함께 <위대한 김정은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당중앙의 혁명사상으로 전당과 온 사회를 일색화하기 위한 사상공세를 강력히 전개하자!>라는 구호들로 확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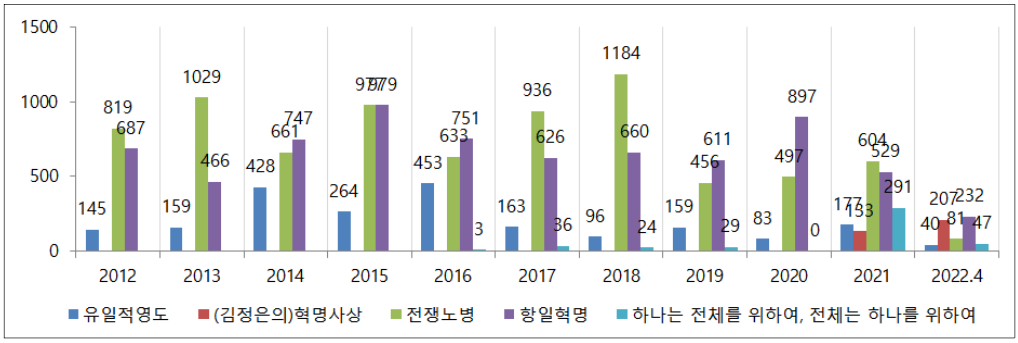
이러한 김정은의 혁명사상은 5가지 주제로 요약된다.[61] 첫째, 모든 분야에서 경직성을 풀고 대담한 착상과 신기술을 창조할 데 대한 사상이다, 둘째, 모든 사업은 조국과 혁명을

61) 김준혁,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혁명사상은 승리와 번영의 새 시대를 펼치는 위대한 힘이다," 『로동신문』 2022.04.19.; 본사기자, "당중앙의 혁명사상으로 전당과 온 사회를 일색화하기 위한 사상공세를 강력히 전개하자," 『로동신문』 2022.04.19.

www.kci.go.kr

위한 백년지계의 사업이라는 사상이다. 셋째, 선 편리성·선 미학성·선 후대관 원칙을 구현한 인민대중제일주의건축사상이다. 넷째,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에 관한 사상이다. 다섯째, 새로운 사회주의농촌건설사상과 함께 인민중심의 멸사복무, 인재농사, 전민과학기술인재화사상 등이다.

〈그림 3〉『로동신문』을 통해 본 김정은 정권 정당성의 이행경로



출처: 『로동신문(2012.1.1.~2022.4.31.)』전체기사들의 통계를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김정은의 혁명사상에 대한 언급은 2021년 4월에 등장하여 12월까지 133회 언급됐다. 2022년에는 4개월간에 걸쳐 총 207회 언급되었고,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같은 기간 김일성-김정일주의에 대한 언급이 136인데 비해 훨씬 높은 빈도수다. 그리고 2022년 사상제일주의가 갖는 중요성을 의미하는 하나의 배경이다. 김정은 혁명사상에 대한 사상공세가 사상제일주의라는 새로운 통치담론의 재생산과 확대를 유인하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구호가 2021년부터 크게 소환되고 있다.[62] 현재 개인주의나 이기주의와 같은 반사회주의적 요소들에 대한 비판이 확대되는 국면에서 다시 집단적동원기제로 유인되고 있다.[63] 또한 김정은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을 위한 정신적 지주, 체제정당성과 관련된 논의들도 바뀌고 있다. 2018년 이전까지는 주로 전쟁노병들의 헌신과 투쟁정신이 국가건설을 위한 정신적지주로 유인되었다면, 2019년 이후로는 다시 항일혁명투사들의 충실성의 일화나 항일혁명의 정통성을 김정은의 혁명사상과 함께 정신적지주로 소환하고 있다.

더불어 1970년대의 김일성시대는 북한주민들에게 사회주의의 최전성기를 누렸던 '추억

62) 2021년에 개인주의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게 언급되는 행위유형은 자본주의문화, 한류, 이기주의 등 사이에서 집단주의와 비교되어 비사회주의적이면서도 반사회주의적인 행위로 지적된다.

63) 김성남,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이 구호가 사회주의농촌에 더 깊이 뿌리내리게 하자," 『로동신문』 2022.04.06.

www.kei.go.kr

의 시대'였고, 이른바 '환호의 정치'로 대변된다. 김정일 시대는 이러한 김일성의 후광과 사망을 역이용한 '그리움의 정치'[64]로 대변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김정은 시대는 인민제일이라는 사상을 통해 '감성의 정치'로 민심을 확보하려 한다. 전통적인 사상의 독재가 감성을 내세운 새로운 통치담론의 이행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의 최대 도전과제는 지능형사회(知能形 社會)를 제어할 수 있는 수단과 능력, 설득 가능성이다.

지능형사회는 최소한 사물이나 현상을 이해하고 대처하는 지적 능력, 또는 지혜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러한 지혜와 대응능력이 발달하고 있는 사회를 의미한다. 즉 김정은 체제에서 또 다른 사상의 독재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과제는 오직 세습가문을 위해 존재했던 광장정치, 화려한 퍼포먼스, 그리고 명령체계에 의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던 복종형 사회의 이면에서 등장하는 지능형사회의 문제다. 복종형 사회의 이면에는 보다 많은 주민들이 주체로 참여하는 지능형사회가 있다. 이 때문에 사상제일주의와 새로운 도덕건설을 사회통치담론으로 내세워 다시 복종의 일상화, 혁명의 일상화를 회복하려 하고 있다. 실제로 2022년 현재의 사상전은 '사람들의 의식수준과 심리상태, 정황과 계기'에 따른 필요성을 그 배경으로 한다.[65] 이는 북한지도부가 주민들의 사상 정신적, 사회경제적, 정치 문화적 심리상태와 변화에 따른 문제의식들을 체제유지차원에서 보다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아주 제한적으로나마 북한에서도 지능형정보통신시스템의 발달은 지능형사회의 변화와 주민의식의 발달을 촉진한다. 폐쇄된 북한사회에서 비공식적으로나마 국제사회나 한류와 같은 외부정보의 공유 및 활용(정보의 유입, 공유, 전달, 보관, 변형)이라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변화가 공존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국가의 통제에 반하는 이중삼중의 대응기술, 보안기술, 암호화기술들의 발달은 국가의 통제능력을 무력화한다. 이러한 북한사회의 진화와 주민들의 정신문화적 발달을 제어하고, 다시 원점으로의 회귀를 이뤄내야 하는 것이 북한지도부의 핵심목표다. 경제개발, 화려한 건축설계, 개방적 문화예술, 인재중시, 교육의 세계화 등과 같은 혁신적인 목표들을 추구함으로써 '인민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나 국가적 투자는 여전히 평양이나 원산과 같이 일부 특정 도시들에서만 이뤄진다. 대부분의 도시들과 농촌, 기업과 주민들은 여전히 자력갱생 현장에서 투쟁, 전투, 계획, 동원, 과제, 경쟁 등과 같이 전시체제와도 같은 일상을 강요받는다. 이런 속에서 집단목표와 개인욕망사이에 형식주의, 보신주의, 본위주의, 개인주의, 금전주의와 같은 일상은 당연한 것이다. 결국 주민들에 대한 정신적·심리적 통합과 통제를 위한 혁신적인 통

64) 김윤희, "영생하는 수령과 '그리움의 정치,"『국제정치논총』 제56집 제2호 (한국국제정치학회, 2016), pp.207-251.

65) 본사기자, "당중앙의 혁명사상으로 전당과 온 사회를 일색화하기 위한 사상공세를 강력히 전개하자,"『로동신문』 2022.04.19.

www.kci.go.kr

치수단이 필요했고, 통치담론의 지속적인 재생산을 통해 전통적 사회주의와 집단주의로의 회귀를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김정은은 관료들을 주민회귀를 위한 책임주체로 설정하고, 관료의 전문성과 잦은 인사이동, 책임전가를 통해 간부들의 부정부패 기회와 공간을 최소화하고 긴장성효과를 꾀하려 한다. 이것이 김정은 정권에서 이른바 관료개혁으로 나타나고 김정은 정권 통치전략의 대표적인 특징이 되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관료들의 문제제기를 통해 인민철학을 내세우고 주민들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려고 한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관료들도 시장의 이익에 보다 친숙하고 붉은 모자를 쓴 다른 한 형태의 주민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또 다른 딜레마다.

Ⅴ. 결론

이 연구는 김정은 집권 10년의 통치담론들을 계승성과 독자성의 차원에서 살펴보고 그 도전요인들을 분석했다. 2022년은 북한이 김일성탄생 110주년과 김정일탄생 80주년, 주체 100주년에 더하여 김정은 정권의 출범 10주년을 맞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 속에서 올해 북한체제의 중요한 전환기해로 볼 수 있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연구결과와 핵심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김정은 정권에서 통치담론들의 철학적 해석은 선 명제·후 이론정립이라는 과정을 통해 생산된다. 둘째, 김정은 시대 통치담론들은 2018년 이전까지 선대정권에 대한 계승성의 전략 차원에서 정략적으로 이용되었다면, 비핵화회담 이후로 차별성과 독자성의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변형되기 시작한다. 즉 지금까지 4대 통치담론들의 등장 및 우선순위에 따른 위상 및 위계관계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인민중심의 하향식 통치담론이라면, 인민대중제일주의는 인민우위의 상향식 통치정책과 통합정책으로서의 통치담론으로 재생산된 것이다. 그리고 김일성-김정일주의나 김정일애국주의는 계승성의 차원에서 주민결속을 위한 통치담론이라면, 인민대중제일주의와 국가제일주의는 독자성의 차원에서 김정은 체제의 정당성과 주민동원력을 핵심으로 하는 통치담론으로 승화한 결과다. 특히 머지않아 김정은 정권이 인민대중제일주의이념을 김정은주의로 승화되기 위한 사상, 이론 및 방법의 체계로 공식화할 것이라는 예측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셋째, 동일한 맥락에서 집권 10년을 계기로 김정은은 선대지도자들에게 부여했던 최고지위들을 모두 소환하여 동등한 지위를 갖췄다. 이를 바탕으로 김정은의 혁명사상에 대한 이론적 정립과 함께 선대수령을 능가하는

www.kci.go.kr

최고지도자로서의 위상을 공식화하고 있다. 실제로 김정은을 "몇 세기에 한 번이나 출현할 수 있는 위대하고 지혜롭고 강력한 지도자"로 추대하면서 선대지도자들의 지위와도 분명히 다른 차이를 공식화하고 있는 것이다.[66] 그리고 사상제일주의를 내세워 김정은 사상에로의 통합, 주민통합을 가속화하고 있다. 넷째, 김정은 정권에서 통치담론의 지속적인 재생산과 주입은 북한사회변동에 따른 새로운 사상의 독재, 재생산담론인 동시에 중요한 도전요인에 직면해 있다. 즉 지능형사회의 발달 속에서 사상의 일상화나 집단주의일상화의 오류들이 새로운 사상의 독재와 충돌하는 경향이다.

현재 북한에서 관료들이나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은 시장이나 자력갱생에 떠밀려있다. 그 속에서 군비확장이나 지속적인 핵미사일시험이나 발사에 소요되는 비용증가는 시간이 흐를수록 관료엘리트들의 부패가속화, 주민불만 등을 가증시킬 위험성이 있다. 이런 배경에서 최근 당중앙위원회 제8기 5차 전원회의(2022.6.8.~6.11)와 당중앙위원회 비서국 회의(2022.6.12.) 등에서 권력엘리트 개편, 당의 기율감독체계 개편 및 세부화 등에 따른 일련의 조치들이 특별히 주목된다.[67] 이어 6월 28일에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비서국 확대회의에서 △각 급 당조직들의 사업체계 정비 및 정치활동강화문제, △이에 따른 당중앙위원회 기구기편, △각 도당위원회 체계개편, △당 기밀문서관리체계 개선, △보위·안전·사법·검찰부문 정책지도 개편, △당 일군들을 위한 새로운 학습제도 구축 등과 관련된 문제들이 논의된 것으로 보아 김정은 독자체제로서의 정치사상적 통제가 새롭게 개편·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68] 제반 사실들은 북한내부에서 정치사회변동에 따른 체제위기의식이 크게 증가하고 있던 가, 아니면 4대 세습을 위한 준비 작업들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두 가지 배경 내에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현재 김정은 체제의 고위험군은 외부보다 내부에 있을지도 모른다.

결과적으로 김정은은 집권 10년 간 정치권력차원에서 수령의 위상은 구축하였으나, 사상적 측면에서의 독립성은 완벽하게 구축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는 또 다른 통치담론의 재생산 가능성을 의미하며 북한정치사회의 최대 딜레마로 등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상적 통치담론으로서의 이론화나 주민들의 새로운 도덕성 유인 및 사상적 결집을 확대·전개하려고 하지만, 오히려 정치사회전반에서 일상화의 오류들이 보다 확대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

66) 김용일·장임향,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절대적인 권위는 위대한 우리 국가의 존엄이고 위상이다,"『로동신문』 2022.06.28.

67) 본사정치보도반, "조선로동당 제8기 제5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로동신문』 2022.06.11.; 본사정치보도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국회의 진행,"『로동신문』 2022.06.13.

68) 본사정치보도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국 확대회의 진행,"『로동신문』 2022.06.28.

www.kci.go.kr

❖ 참고문헌 ❖

강남철, “우리국가제일주의의 사상정신적 기초.”『김일성종합대학학보(법률학)』 제65권 제2호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19), 24-28.

강혜석, “김정은 시대 통치담론의 변화와 ‘국가’의 부상: <김정일애국주의>와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중심으로.”『국제정치논총』 제59권 3호 (한국국제정치학회, 2019), 309-346.

김근식, “김정은시대의 ‘김일성-김정일주의’: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의 추상화.”『한국과 국제정치』 제30권 1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4), 65-92.

김강민, “인민대중제일주의는 주체의 인민관, 인민철학의 최고정화.”『김일성종합대학학보(철학, 경제학)』 제63권 제3호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17), 16-18.

김기덕, “신자유주의, 관리주의 그리고 사회복지: 푸코의 통치성이론을 중심으로.”『한국사회복지학』제72권 제2호 (한국사회복지학회, 2020), 181-200.

김기철,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구현하는 것은 우리당의 본성적 요구.”『김일성종합대학학보(철학, 경제학)』 제62권 제4호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16), 34-37.

김명성, “북한의 ‘국가제일주의’ 무엇을 의미하나.”『북한』 (북한연구소, 2018), 109-111.

김병진, “운명도 미래도 다 맡아 보살펴주시는 위대한 어버이를 수령으로 높이 모신 인민의 영광 끝없다.”『로동신문』 2021.10.22.

김윤희, “영생하는 수령과 ‘그리움의 정치.”『국제정치논총』 제56집 2호 (한국국제정치학회, 2016), 207-251.

김성남, “우리국가제일주의의 본질.”『로동신문』 2019.01.08.

_____,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이 구호가 사회주의농촌에 더 깊이 뿌리내리게 하자.”『로동신문』 2022.04.06.

김용일·장임향,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절대적인 권위는 위대한 우리 국가의 존엄이고 위상이다.”『로동신문』 2022.06.28.

김용진, “일군들의 사업평가기준.”『로동신문』 2012.10.25.

김정은,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로동신문』 2012.04.06.

_____,『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여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치자』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3.

_____,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4차 세포비서대회에서 하신 연설.”『로동신문』 2013.01.30.

_____, “당의 주체적 건축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건설에서 대번영기를 열어나가자.”『로동신문』 2013.12.08.

_____,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자,”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에서

www.kei.go.kr

한 연설.『로동신문』2014.02.26.

_____, “인민대중에 대한 멸사복무는 조선로동당의 존재방식이며 불패의 힘의 원천이다.” 조선로동당 창건 70돌 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에서 한 연설,『로동신문』2015.10.10.

_____, “신년사.”『로동신문』2015.01.01.

_____, “당, 국가경제기관, 근로단체책임일군들과 하신 담화.”『로동신문』2015.05.29.

_____, “김일성-김정일주의 청년운동의 최전성기를 펼쳐나가자.”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에서 한 연설,『로동신문』2016.08.28.

김정철, “우리국가제일주의의 본질적 내용.”『김일성종합대학학보(철학, 경제학)』제64권 제4호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18), 41-45.

김종수·김상범, “북한 김정은 시대 위기와 대응: ‘인간의 얼굴을 한 수령’과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소환·발전.”『국가안보와 전략』제21권 1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1), 194-225.

김종손, “자주시대의 앞길을 비쳐주는 혁명의 태양.”『로동신문』2012.02.05.

김진환, “김정은 시대 지배이데올로기의 특징과 전망: ‘김일성주의’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로.”『북한연구학회보』제17권 제2호 (북한연구학회, 2013), 29-45.

김준혁,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혁명사상은 승리와 번영의 새 시대를 펼치는 위대한 힘이다.”『로동신문』2022.04.19.

김창희, “김정은 유일영도체계의 확립과정과 함의.”『한국동북아논총』제72권 (한국동북아학회, 2014), 179-196.

_____, “북한의 통치이념 ‘김일성-김정일주의’분석.”『한국정치연구』제22권 제3호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13), 187-212.

김춘근, “우리시대의 완성된 혁명의 지도사상으로서의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특출한 력사적 지위.”『김일성종합대학학보(철학, 경제학)』제62권 제4호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16), 27-30.

마성은, “우리국가제일주의와 북측 동시.”『아동청소년문학연구』제26호 (한국아동청소년 문학연구학회, 2020), 71-102.

미셸 푸코 지음, 이상우 역,『담론의 질서』서울: 도서출판 중원문화, 2020.

박상희, “김일성-김정일의 정통성 유지와 이미지 차별화전략.”『북한학연구』제15권 제11호 (북한연구소, 2019), 5-36.

박옥경, “신심 드높이 질풍 노도쳐나가자.”『로동신문』2017.11.20.

박혜숙,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밝히신 우리국가제일주의에 관한 사상.”『김일성종합대학학보(철학)』제65권 제2호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19), 24-30.

본사기자, “김정일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자.”『로동신문』2012.05.21.

_____, “당중앙의 혁명사상으로 전당과 온 사회를 일색화하기 위한 사상공세를 강력히 전개

www.kci.go.kr

하자.”『로동신문』2022.04.19.

_____,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건국업적을 깊이 연구체득하고 더욱 빛내여나가자.” 『로동신문』2013.09.05.

_____, “두 세기를 밝게 비쳐준 태양의 존엄.”『로동신문』2012.03.13.

_____, “우리식 사회주의는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이다.”『로동신문』 2013.12.27.

_____, “우리당과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은동지를 우리당의 최고 수위에 높이 추대.” 『로동신문』2012.04.12.

_____, “일군들은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정신을 깊이 간직하자.”『로동신문』2012.05.02.

_____,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민족의 대경사, 위대한 조선인민의 대승리.”『로동신문』 2017.11.30.

본사정치보도반, “조선로동당 제8기 제5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로동신문』 2022.06.11.

_____,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국회의 진행.”『로동신문』2022.06.13.

_____,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국 확대회의 진행.”『로동신문』2022.06.28.

서성범, “사상제일주의를 일관하게 틀어쥐고 나가자.”『로동신문』2021.08.23.

서재진,『또 하나의 북한사회』서울: 나남출판사, 1995.

선병주, “김정은 시대 ‘인민대중제일주의’ 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신동훈,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과 김정일의 정치적 리더십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0.

안경모, “북한의 선군노선과 권위구축동학.”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안토니 기든스, 지음, 윤병철·박병래 옮김,『사회이론의 주요 쟁점』서울: 문예출판사, 2012.

오세진, “김정일과 김정은 통치제제 비교분석: 사상적기반, 통치기구, 지배엘리트비교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오태호,『김일성 유일사상체계에서 김정일애국주의를 넘어 김정은 시대로의 안착』서울: 솔출판사, 2018.

유영식, “북한 ‘국가주의’탐색: 우리 국가제일주의.”『정신논단』제51권 제5호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사상과 문화연구원, 2019), 355-380.

이윤규, “북한 김정은 독재체제에서의 우상화: 김정일·김정은 우상화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전략연구』제21권 제3호(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4), 171-203.

전영선, “사회주의문명국으로의 길, 전망과 과제.”『북한학보』제45집 제2호 (북한연구소, 2020).

정민섭·남궁승필, “김일성과 김정일의 우상화정책 비교연구.”『국가정책연구』제32권 제1호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18), 179-200.

www.kci.go.kr

정영철, “북한의 ‘우리 국가제일주의’: 국가의 재등장과 ‘체제 재건설’의 이데올로기.”『현대북한연구』 제23권 제1호(북한대학원대학교 심연북한연구소, 2020), 8-38.

조선사회과학자협회, “김일성-김정일주의는 모든 것을 인민대중을 위해 복무시켜나가는 혁명사상.”『주체』 평양: 조선사회과학자협회, 연월미상.

_____,『김일성-김정일주의 기본』 평양: 조선사회과학원출판사, 2016.

조선중앙통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1차 선전부문일군강습회 참가자들에게 강령적인 서한을 보내시였다.”『로동신문』 2022.03.29.

진희관, “북한의 사상과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북한연구학회보』 제18권 제2호(북한연구학회, 2014), 1-25.

최칠남, “위대한 김정일애국주의는 백전백승의 기치이다.”『로동신문』 2012.06.21.

콜린 고든·그래엄 버첼·피터 밀러 엮음, 심성보 외 옮김,『푸코 효과: 통치성에 관한 연구』 파주: 도서출판난장, 2016.

한승호·이수원, “김정은 시대의 구호 ‘김정일애국주의’ 의미와 정치적 의도.”『국방정책연구』 제29권 제2호 (한국국방연구원, 2013), 113-138.

홍태영, “푸코의 자유주의적 통치성과 정치.”『한국정치학회보』 제26집 제2호 (한국정치학회, 2012), 51-70.

C. E. Merriam 지음, 신복룡 옮김.『정치권력론』 서울: 선인, 2006.

Easton, David. “An Approach to the Analysis of Political Systems.” *World Politics* 9(3), (Apr., 1957), 383-400.

Foucault, Michel. *Sécurité, Territoire, Population Cours de Collège de France*. 1977~1978. Paris: Gallimard, 2004.

Han Seung-ho. “Implications of the Kim Jong-un Regime’s Political Ideologies: Focusing on the Advent and Meanings of Neologism in Political Thoughts.”『세계지역연구논총』 제26집 제2호 (한국세계지역학회, 2018), 285-298.

Marx and Engels. *The German Ideology*, London: Lawrence and Wishart, 1965.

Weber, Max. *The Theory of Social and Economic Organization*, New York: Free Press, 1964.

www.kci.go.kr

• Abstract •

Dynamics of the 10-years Governing Discourse under the Kim Jong-un's Regime: Succession and Independence, and its Challenging Factors

Kang Chaeyeon | Sung Kyun Kwan University

This article examines the 10-years governing discourse under the Kim Jong-un's regime in terms of succession and independence, and analyzes the challenges. The study starts with the question of how the cause and practicality of the dictatorship of the three generations of hereditary, the succession of ideology, and the identity during the 10 years of Kim Jong-un's regime are being induced through the transformation of the People's Discourse.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 the Kim Jong-un regime, the philosophical interpretation of the discourse of governance is established through a first-proposition, post-theoretical establishment. Second, if governance discourse was used politically and strategically in terms of succession to the previous government before 2018, it has since been strategically transformed and reproduced in terms of differentiation and independence. Third, starting in the 10th year of his reign, Kim Jong-un is accelerating his run toward a new monopoly system by summoning all the highest positions of his predecessors (2021), theorizing Kim Jong-un's revolutionary ideas(2021), formulating the top of the leaders beyond his predecessor(2022), and reorganizing party's organizations, activities, and control methods(2022), etc. Fourth, for this purpose, ideological firstism is emerging, and the integration of new ideas and the integration of residents is emphasized. Fifth, under the Kim Jong-un regime, the continuous reproduction of the discourse on governance is based on the core factors of North Korean social change following the transition from the current submissive society to the intelligent society. Therefore, the challenge factor in the discourse of government is the error of collectivism's everydayization and the clash of an intelligent society against the dictatorship of ideology.

Key words : governance discourse, succession, independence, people's first, ideological firstism, Kim Jong-un's revolutionary ideas.

논 문 투 고 일 : 2022.08.12
논문심사완료일 : 2022.09.26
논문게재확정일 : 2022.09.26

www.kci.go.kr

www.kci.go.kr